

# 양현종, 황금장갑도 낄까 '관심'

골든글러브 진기록과 감상포인트

내일 오후 KBO골든글러브 시상식 개최  
리그최초 정규·한국시리즈 MVP석권  
생애 첫 골든글러브까지 트리플크라운 도전  
최고령 이승엽·이정후 신인 수상도 관심



올해 '황금장갑'의 주인공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O(총재 구본능)가 주최하고 타이거뱅크(회장 김정규)가 후원하는 '2017 타이거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3일 오후 5시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개최된다.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에게 시상하는 KBO 골든글러브는 올 시즌 맹활약을 펼친 후보 85명 중 단 10명에게만 수상의 영광을 준다.

전체 후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KIA 양현종이다. 리그 최초로 한 시즌에 정규시즌 MVP와 한국시리즈 MVP를 동시에 석권한 양현종은 생애 첫 골든글러브까지 추가해 시상식 트리플크라운에 도전한다.

2015년 개인통산 10번째 골든글

러브를 거머쥐며 최다 수상 기록과 최고령(39세 3개월 20일) 수상 기록을 세운 이승엽은 마지막 골든글러브와 함께 이 부문 기록 경신에 다시 한 번 도전한다. 또 김기태, 양준혁, 홍성흔과 함께 지명타자 부문 최다(4회) 수상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는 11년만에 신인 수상자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2017 KBO 신인상을 받은 넥센 이정후는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려 1992년 염종석, 1994년 김재현, 2006년 류현진에 이어 역대 4번째 고졸신인 수상이자 통산 19번째 신인 수상에 도전한다.

강민호는 시즌 종료 후 FA 계약으로 롯데에서 삼성으로 유니폼을 갈아입고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린다 시즌 종료 후 팀 이적 선수 수상자로는 지난해 삼성에서 KIA로 옮긴 후 외야수 부문을 수상한 최영우까지 8명이 있었다. FA 이적 후 수상은 6번이었다. 1993년 김광림(OB→쌍방울)과 한대화(해태→LG)는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후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바 있다.

골든글러브 역대 최다 득표수는 2007년 당시 두산 소속으로 350표를 획득해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이종욱(NC)이며, 최고 득표율은 2002년 지명타자 부문에서 유효표 272표 중 270표를

획득해 99.26%의 득표율을 기록한 마해영(당시 삼성)이다.

지난 8일 마감된 2017 골든글러브 투표의 총 투표수는 357표로 올해 역대 최다투표수를 차지하는 선수가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2017 타이거뱅크 KBO 골든글러브 선정 투표는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할 기자, 중계담당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다. 투표 결과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 시상식은 KBS 2TV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최혜진이 10일 베트남 호찌민 트윈도브스GC에서 끝난 '호싱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 KLPGA 개막전 우승 최혜진 세계랭킹 수직상승 143→13위 평산산 5주 연속 1위...박성현도 2위 유지

최혜진(18·롯데)이 루키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막전 우승과 함께 세계 랭킹을 끌어 올렸다. 11일(한국시간) 발표된 세계 여자골프 랭킹에서 최혜진은 평균 4.80점을 기록,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13위에 이름을 걸었다.

최혜진은 10일 베트남에서 막을 내린 KLPGA 투어 2018시즌 개막전 '호싱 챔피언십 위드 SBS'에서 5타차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프로 첫 우승과 함께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2017년 첫째 주 세계랭킹 143위에 머물러 있던 최혜진은 지난 1년 동안 세계랭킹을 무려 130계단이나 뛰어 올랐다. 불과 11개 대회에 출전해 거둔 성과다.

이 중 KLPGA 투어 9개 대회에서 우승 3회와 준우승 2회 등 통산 6차례나 올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

자오펜에서는 깜짝 준우승했다.

지난 8월 프로로 전향했지만 여전히 여고생 신분인 최혜진은 1년 만에 LPGA 투어를 주무대로 삼지 않는 선수 중 세계 최고 랭커가 됐다.

LPGA 투어가 휴식기에 접어들면서 상위권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평산산(중국)이 평균 8.27점으로 5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은 8.17점으로 2위를 유지했다. 평산산과 격차는 0.10점이다.

유소연(27·메디힐), 렉시 톰슨(미국)이 세계 랭킹 3, 4위를 지켰다. 전인지(23)는 에리아 푸타누간(태국)과 자리바꿈하며 5위가 됐다.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김인경(29·한화), 리디아 고(뉴질랜드), 크리스티 커(미국)가 7~10위로 톱10에 자리했다.

## 양현종·이재성·오세근 등 '2017 동아시아스포츠대상'

5대 프로스포츠 선수들 직접 투표로 종목별 선정



모글스키 최재우, 월드컵 6위...결선 이쉬운 턴 실수

한국 모글스키의 간판 최재우(23)가 9일 핀란드 루카에서 열린 올 시즌 국제스카이런닝(IS) 첫 월드컵에서 6위를 차지했다. 매 시즌 설상에서 열리는 모글 종목의 첫 번째 월드컵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참가하는 대회다.

세계랭킹 1위인 마카엘 킹스버리(캐나다)와 카자흐스탄의 간판스타 드미트리 라이케르트(세계랭킹 4위) 등 총 67명의 경쟁한 선수들이 모두 출전했다.

최재우는 이날 예선에서 77.76점을 기록, 18명이 진출하는 1차 결선에 전체 8위로 올랐다. 1차 결선에서는 시간 기록과 에어 점수에서 톱클래스 수준을 선보이며 80.20점을 기록, 6명이 진출하는 최종 결승에 6위로 안착했다.

그러나 최종 결승에서는 턴에서 실수하며 안주하지 못했다. 최종 6위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최재우는 "마지막 결선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를 펼친 것 같다"며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 계속 연습한 턴 기술에서도 좋은 모습이 나와 결과도 저절로 따라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첫 경기에서 관중은 성적이 나와서 좋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집중해 얼마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 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재우를 비롯한 모글 스키 국가대표 선수단은 21일부터 중국 타이우에서 열리는 모글 월드컵에 출전, 올해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이후 1월부터 다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진지훈련을 하며 올림픽을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간다.



2017 CMS와 함께하는 동아시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로배구 남자 문성민(왼쪽부터), 여자 김해란, 골프 이정은, 프로농구 여자 박혜진, 프로야구 양현종, 특별상 이승엽.

프로야구의 양현종, 프로축구의 이재성 등이 2017 동아시아스포츠대상을 수상했다.

CMS와 함께하는 2017 동아시아스포츠대상이 1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스포츠동아, 동아일보, 채널A, CMS(센트럴미디어컬처비즈니스)가 공동 주최한 'CMS와 함께하는 2017 동아시아스포츠대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5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직접 투표로 종목별 '올해의 선수'를 선정했다.

투표 집계 결과, 프로야구에서

KIA 타이거즈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에이스 양현종이 SK 와이번스의 홈런왕 최정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현종은 KBO 정규시즌 MVP, 한국시리즈 MVP에 이어 선수들이 뽑은 'CMS와 함께하는 2017 동아시아스포츠대상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에 선정됐다.

프로축구에서는 전북현대를 우승으로 이끈 미드필더 이재성이 수원 삼성 열기훈, 강원FC 이근호를 넘어서었다.

이재성은 올 시즌 프로축구 K리

그 클래식(부리그) MVP와 베스트 11 선정에 이어 또 한 번 영광을 누렸다.

양현종과 이재성은 처음으로 동아시아스포츠대상 올해의 선수를 차지했다.

남자프로골프는 최진호(현대제철), 여자프로골프는 이정은(토니모리)이 '올해의 선수'가 됐다. 최진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6~2017 시즌을 기준으로 한 남자프로농구 올해의 선수는 KGC 인삼공사 센터 오세근에게 돌아갔다. 오세근은 이정현(KCC), 박찬희(전지랜드)보다 많은 선수들의 지지를 얻어 2012년 이후 두번째로 수상 감격을 누렸다.

여자프로농구는 우리은행 박혜진이 3년 연속 수상자가 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2009년 제1회 시상식 이후 동아시아스포츠대상에서 3년 연속 수상은 5대 프로스포츠 통틀어 박혜진이 최초다.

남자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의 문성민도 개인 통산 세 번째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문성민은 2013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남자배구 최고선수를 차지했다.

여자프로배구는 흥국생명 리베로 김해란이 리베로로서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김해란도 2012년 이후 두 번째 영예를 차지했다.

특별상은 올해를 끝으로 명예롭게 은퇴한 '국민타자' 이승엽(전 삼성)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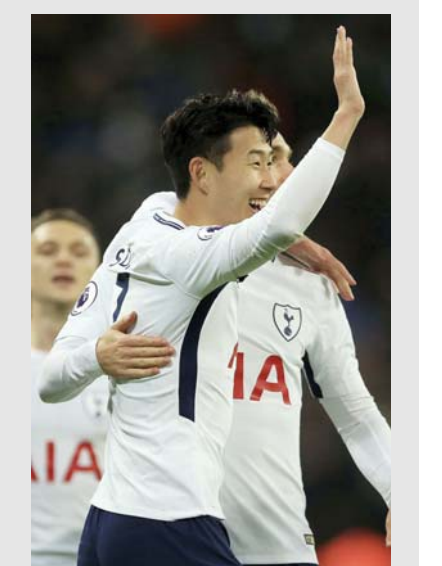
## 외신이 인정하는 손흥민, 16R 베스트 1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파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영국 BBC가 뽑은 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손흥민은 11일(한국시간) BBC가 발표한 2017~2018 EPL 16라운드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맨체스터 시티 듀오 다비드 실바, 케빈 데 브라우너와 레스터 시티 리아드 미레즈 등 세계적인 미드필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은 9일 자정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스토크시티전에 선발로 나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21분 날카로운 크로스로 자책골을 유도한 손흥민은 후반 8분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지난 2일 왓퍼드와의 리그 15라운드, 7일 아포엘(키프로스)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최종전에 이은 3경기 연속 골이다.

후반 30분에는 크리스티안 에



리센을 향한 정확한 패스로 도움을 보냈다.

ESPN도 손흥민을 베스트 11에 포함시켰다. 이 매체는 "많은 이가 스토크전 승리에 힘을 보탤까만 손흥민 믿음은 아니었다"고 적었다.

뉴시스

## 축구대표팀 그란데 수석코치 왜 벤치 대신 관중석 고집하나

한국 축구 정확하게 분석 의도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에 대비, 영입한 토니 그란데 수석코치와 하비에르 미라노 피지컬 코치는 2017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대회를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다. 지난날 국내에서 열린 폴란드와 세르비아와의 평가전도 관중석에서 지켜봤다. 10일 중국전이 그랬고 남은 북한(12일)과 일본(16일)전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그란데 코치가 신 감독에게 요청했다. 11월

평가전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은 했지만, 월드컵 본선을 위해 한국 축구를 정확하게 분석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란데 코치는 스페인 대표팀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잔뼈가 굵은 지도자다.

협회 측은 "중국전 때는 하프타임에 라커룸으로 내려와 신 감독과 수시로 의견을 나눴다. 바로 피드백을 하기는 어렵지만 감독의 말을 빌리면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늘 함께 다니며 축구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 '일간판' 고다이라, 1000m도 접수...1분12초09 세계新

이상화(28·스포츠투토)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일본 여자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주자인 고다이라 나옴(31)가 1000m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다. 11일(한국시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대회 여자 1000m 디비전 A 2차 레이스에서 1분12초09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015년 11월 브리티니 보우(미국)가 세운 세계기록(1분12초18)보다 0.09초 빨랐다.

일본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올림픽 개인종목에서 세계기록

을 작성한 것은 고다이라가 처음이다. 500m에서 연일 이상화를 누르고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고다이라는 1000m에서도 전장을 밝혔다.

고다이라는 "마지막 바퀴는 정말 힘들었다. 내 스스로에게 '그냥 가라'고 말해야 했다"면서 "이제는 조금 자신감을 갖고(500m 뿐 아니라) 1000m도 내 종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변에서 많은 축하를 해주기 때문이다"며 웃었다.

함께 출전한 박승희(25·스포츠



은 500m 디비전 A 2차 레이스에서 6분15초02로 11위에 자리했다.

중 15위에 올랐다. 여자 3000m 디비전 B 2차 레이스에 나선 김보름(24·강원도청)은 4분04초44로 6위를 차지했다.

남자 장거리 간판 이승훈(29·대한항공)